



언어재활사의 청각장애아동 중재 경험과 요구*

최은아** · 최상배***

Experience and Demand of Speech Language Pathologists on the Language Intervention for Children with Deaf or Hard of Hearing*

Choi, Euna** · Choi, Sangbae***

ABSTRACT

[Purpose]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experiences, difficulties, and needs of speech-language pathologists (SLPs) in providing language intervention for deaf or hard of hearing (DHH) children. **[Method]** A focus group interview (FGI) was conducted with six SLPs who specialize in language intervention for children with DHH. **[Results]** First, the reasons for the involvement of SLPs in the intervention of DHH children included academic interests, serendipitous encounters, and double majors in speech-language pathology and audiology.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intervention for DHH children involved sessions accompanied by caregivers, therapy room modifications reflecting DHH needs, and essential knowledge of audiology. SLPs emphasized that language intervention for DHH children must consider the child's age, degree of hearing loss, and type of hearing loss, necessitating that SLPs possess audiological knowledge. Second, the challenges faced in language intervention for DHH children included difficulties related to the specific characteristics of DHH, low awareness of DHH among caregivers, challenges in developing specialized expertise in DHH, and difficulties in collaborative approaches between SLPs and school teachers. Third, to enhance the success of language intervention for DHH children, it is crucial to improve awareness of DHH, strengthen sign language education, expand in-service training to boost expertise in DHH language intervention, establish a systematic DHH education system, and foster cooperation among experts, alongside sharing information relevant to language intervention for DHH children. **[Conclusion]** This study is unique in its qualitative approach to examining SLPs working with DHH children and significant in its analysis of practical implications for the successful language intervention of DHH children.

Key Words : Deaf or Hard of Hearing (DHH), Speech Language Pathologist (SLP), Language Intervention, Auditory Rehabilitation

* 이 연구는 제1저자의 석사학위 논문을 수정·보완하였음.

** 제 1저자, 포낙보청기 세종센터 청능사

Audiologist, Phonak Hearing Aid Center in Sejong

*** 교신저자, 국립공주대학교 특수교육과 교수(sbchoi@kongju.ac.kr)

Professor, Dept. of Special Education, Kongju National University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선천적 혹은 후천적 원인으로 인한 난청은 듣기와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초래하며, 특히 선천적 난청은 유·소아의 언어와 의사소통 발달에 큰 영향을 끼친다. 따라서 청각장애 아동에 대한 조기 발견과 효과적인 개입은 연령에 맞는 언어발달에 필수적이며, 조기발견과 개입이 지연되면 아동의 발달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쳐 문해력이 낮을 수 있고, 교육적 성공과 삶의 질이 저하될 수 있다(Brennan-Jones, White, Rush, & Law, 2014). 청각장애는 말초 청각 기관의 손상으로 뇌의 청각 중추에 소리 정보가 도달하지 못하여 듣기 자극이 전달되지 않거나 청각적 신호의 처리 능력이 저하되는 장애이다(장재진, 장선아, 2018). Ciorba, Corazzi, Negossi, Tazzari, Bianchini 그리고 Aimoni(2017)는 청각장애는 제대로 인식되지 않으면 아동 발달과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조기진단이 중요하며, 경도-중등도 또는 편측성 청력손실이 있는 아동도 적절하게 관리되지 않으면 학습 또는 언어장애가 나타날 수 있다고 하였다.

조기언어 증재는 신경 가소성(neuroplasticity)과 관련 있는데, 신경가소성은 출생 후 2년 안에 급속히 증가하여 3~4세까지 지속된다. 난청이 있는 영유아는 달팽이관 손상으로 유아기 동안(특히 첫 6~8개월 동안) 청각 경로와 피질 영역 발달이 지연될 수 있다. 보청기나 인공와우 같은 청각기기를 통해 적절한 청각 자극을 받게 되면 신경 시냅스 연결(neural synaptic connections) 재활성화가 이루어져 규칙적인 청각경로 발달이 가능해질 수 있다. 그러나 청력손실을 인지하고 교정하지 않을 경우, 난청은 학업과 사회 활동 뿐만 아니라 정서적, 심리적 발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생후 첫 3개월 이내에 영유아의 청력손상을 조기에 발견하는 것은 적절하고 빠른 치료 계획을 세우는 데 매우 중요하다(Ciorba et al., 2017).

조기에 청각장애 진단을 받고 조기 언어증재를 받은 아동은 말 인지능력뿐 아니라, 말 산출능력에서도 빠른 발전을 보인다(윤미선, 2003; 최윤희, 윤미선, 2007). 그러나, 보청기를 착용하거나 인공와우를 이식하더라도 청력이 정상 수준으로 회복되는 것은 아니며, 특히 인공와우를 통해 듣는 소리는 자연의 소리와는 달라 집중적인 청능훈련을 필요로 한다(이서옥, 최상배, 2016). 이지윤, 강은희 그리고 이옥분(2016)은 보청기 착용이나 인공와우 수술로 청각적인 보상이 이루어진 이후에도 초기의 청각 결함은 여전히 남아서 언어치료나 특수교육 등의 재활과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보청기와 인공와우를 통해 언어습득의 일차적 조건인 말소리를 들을 수 있는 상황이 마련되어

도 말소리를 듣는 것만으로 아동의 언어습득과 발달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윤미선, 2005). 소리를 듣게 된 이후에도 그 소리가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는 단계까지 도달해야 하고, 또한 자기의 생각을 말소리로 산출해내는 과정도 거쳐야 한다(윤미선, 2005). 오원석과 박남수(2013)는 청각장애 학생들이 인공와우와 보청기를 통해 청력이 향상되고 수용언어, 표현언어에서 성과를 보이고 있지만, 소음 환경 및 대화자 상황 속에서는 정상 청력을 가진 사람과 같은 수준으로 의사소통 기능을 발휘하기 어렵기 때문에 불리한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하였다.

교육부(2023)의 조사에 따르면 청각장애 대상자 중 80.3%의 학생이 통합교육을 위해 일반학교에 재학 중이다. 청각장애 학생이 통합교육 상황에 더 많이 재학하는 이유는 통합교육의 강조, 보청기와 인공와우 같은 청각 보장구의 발달이 밑바탕이 되고 있다. 또한 청각장애 학생이 일반 또래학생과 상호작용하는 기회의 증진, 보청기나 인공와우를 착용하면 소리를 더 잘 들을 수 있고 일반학교에서 교육을 더 잘 받을 수 있을 거라는 부모의 생각, 청각장애학교 교육 효율성에 대한 회의감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오인혜, 최상배, 김운이, 고은지, 2022; 최상배, 이한나 2015).

청각장애아동 통합교육에 관한 선행연구를 보면, 통합교육을 받는 청각장애학생은 언어영역에서 일반아동들과 차이가 있어 의사소통의 문제, 학습 문제, 교우 관계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였다(박정하, 2020; 전용섭, 정은희, 2015). 박정하(2020)는 언어재활사 대상 설문조사 연구에서 청각장애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는 특성화된 교육과 치료 기회가 제공되나, 일반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은 이들을 위한 치료와 교육이 학교 내에서 별도로 이루어지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일반학교에 다니는 청각장애아동의 경우 지속적인 언어치료가 필요하고, 그로 인한 언어재활사의 역할이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고 하였다. 김은희(2022)는 청각장애 영유아의 조기진단과 조기중재 과정에서 청각장애 유형과 그 특성에 맞는 전문적인 언어치료서비스가 요구되고 있다고 하였다. 윤미선(2005)은 “청각장애아동 언어재활 과정은 청각장애아동이 언어습득과 발달 과정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도록 돕는 것”이라고 하면서, 청각장애아동 조기중재를 담당하는 치료사들의 언어치료 분야별 특성화와 전문가 양성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청각장애 교육과 재활은 다른 언어장애 영역에 비해 적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박정하(2020)는 그 원인으로 청각장애 대상자의 수가 적고, 청각장애 재활 기관이 지역적으로 편중되어 있으며, 보호자가 느끼는 경제적 부담이 크다는 점을 제기하였다. 또한 언어재활사들은 청각장애 언어치료의 필요성을 인식하면서도 치료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하면서, 전문성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는 만큼, 그들이 느끼는 어려움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요구되는 전문성은 무엇인지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청각장애아동 언어중재 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기존 연구들은 언어재활사를 대상으로 청각장애 언어재활 경험 유무, 청각장애 언어재활 교육 이수 현황과 전문성, 요구사항을 묻는 설문조사 연구들이 주를 이루었다(박순길, 류성용, 2016; 박정하, 2020; 윤미희, 윤미선, 2007). 박순길과 류성용(2016)은 청각장애아동을 중재하고 있는 언어치료사 7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언어치료에 대한 인식과 요구도를 Likert 5점 척도를 사용해 살펴보았다. 박정하(2020)는 언어치료사 7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청각장애 치료경험 유무, 청각장애에 대한 지식 및 교육 이수 정도, 청각장애 치료에 관한 인식과 요구 등을 물었다. 윤미희와 윤미선(2007)은 청각장애 영유아 조기중재 현황 파악을 위해 장애인복지관, 청각장애학교, 언어치료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청각장애 영유아의 72.8%가 언어치료실에서 중재를 받고 있다고 하였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선행연구들에서는 청각장애 중재에 대한 언어재활사의 인식과 청각장애 언어재활 현황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가 주로 실시되었다. 반면 청각장애아동을 중재하고 있는 언어재활사들의 경험과 요구를 심층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제한적이었다.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현황 및 인식 조사도 중요하지만, 청각장애아동 언어재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교육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청각장애아동을 중재하고 있는 언어재활사의 현장 경험과 어려움, 요구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심층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필요성을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는 현재 임상에서 청각장애아동을 중재하고 있는 언어재활사들을 대상으로 청각장애아동 언어재활에 대한 경험과 어려움을 심도 있게 살펴보고, 성공적인 청각장애아동 언어재활에 필요한 지원과 요구사항을 알아보고자 초점집단면담(Focus Group Interview, FGI)을 실시하였다.

2. 연구 문제

이 연구는 청각장애아동을 중재하고 있는 언어재활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청각장애아동 언어재활에 대한 경험, 어려움 및 요구사항을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 첫째, 청각장애아동 언어재활에 관한 언어재활사의 경험은 무엇인가?
- 둘째, 청각장애아동 언어재활에 관한 언어재활사의 어려움은 무엇인가?
- 셋째, 청각장애아동 언어재활에 관한 언어재활사의 요구는 무엇인가?

II. 연구 방법

1. 연구 참여자

초점집단면담 참여자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부 또는 대학원에서 언어치료학과 청각학을 복수 전공하여, 언어재활사와 청능사 자격을 둘 다 소지하고 있으면서, 현재 청각장애아동 언어재활을 담당하고 있는 언어재활사. 둘째,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듣고, 자발적 참여 의사와 연구 참여에 사전 동의를 한 언어재활사.

선정된 연구 참여자는 총 6명으로 대전, 세종 지역 사설 언어치료센터에서 청각장애아동을 중재하는 언어재활사였다. 참여자는 모두 청인 여성이었고 한 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5년 이상의 청각장애아동 중재 경험이 있었으며, 두 명은 10년 이상의 경험이 있었다. 이 연구에서는 익명성 보장을 위해 근무지 및 참여자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으며, 참여자는 알파벳순으로 구분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개별적 특성은 아래 <Table 1>과 같다.

<Table 1> Participants

Participant ID	Degree	Speech-language pathologist (SLP) level and other certification	Experience in SLP	Experience in SLP for children with deaf or hard of hearing (DHH)
A	Doctor	SLP level 1, Audiologist	17 years	17 years
B	Master	SLP level 1, Audiologist	10 years	10 years
C	Master	SLP level 1, Audiologist	7 years	7 years
D	Master	SLP level 1, Audiologist	6 years	6 years
E	Master	SLP level 1, Audiologist	7 years	5 years
F	Bachelor	SLP level 2, Audiologist	3 years	3 years

2. 면담 가이드

청각장애아동 언어재활 관련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면담 가이드를 작성하였다. 면담 가이드 적절성 확인을 위해 언어재활사 1인, 특수교육과 교수 1인에게 추가 피드백을 받아 최종 면담 질문지를 작성하였으며, 내용은 <Table 2>와 같다.

<Table 2> Interview Guide

Category	Question
Experiences of SLP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hat motivated you to begin interventions with children who are deaf or hard of hearing (DHH)? - What are the characteristics of language intervention for children with DHH? - What are the types and characteristics of interventions according to the age of children who are DHH? - What are the types and characteristics of interventions according to the type, degree, onset of hearing loss in children who are DHH?
Difficulties of SLP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hat difficulties might arise when providing language intervention for children who are DHH? - Compared to other disabilities, the number of clients is smaller and there is a regional concentration of intervention institutions, resulting in many long-distance interventions. What difficulties are related to this? - What are the challenges in gathering information about DHH? - What difficulties are there in preparing educational materials for interventions for children who are DHH? - What difficulties arise due to caregivers' lack of understanding of children who are DHH? - What are the challenges in improving expertise in auditory rehabilitation? - What difficulties are there in the process of cooperating with professionals (teachers, medical professionals, audiologists, sign language interpreters, etc.) related to education for children who are DHH?
Needs of SLP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s a SLP intervening with children who are DHH, what aspects do you think need to be prioritized for improvement? (educational environment, development of teaching materials, enhancement of expertise, improvement of awareness of hearing loss, education for caregivers, strengthening collaboration among professionals, etc.) - What are your needs as a SLP intervening with children who are DHH regarding the training of SLPs? - What is necessary for cooperation with educational institutions (collaborative approach with teachers)? - What is necessary for the establishment of a systematic education system for children who are DHH?

3. 연구 절차

1) 면담 준비

연구자는 문자와 전화로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연구 참여자에게 설명하였으며, 참여자의 이름과 근무지의 익명성을 약속하였다. 면담은 연구 질문에 기초한 집단토의 형식으로 연구자의 연구실에서 진행할 예정임을 안내하였고, 면담 가이드를 제공하여 사전에 자기 생각과 의견을 정리하여 집단토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면담 내용은 연구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음을 안내하였다.

2) 면담 실시

면담은 면담 가이드를 활용하여 연구자의 연구실에서 진행하였으며, 2024년 2월 22일에 2시간 동안 1회 진행하였다. 연구자는 면담 때 참여자가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였으며, 모든 참여자가 답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여 인터뷰 내용이 포화 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면담을 진행하기 전에 면담 내용 녹음과 면담 내용 전사에 관한 연구 참여자들의 사전 동의를 얻어 자료를 수집하였다.

4. 자료 분석

면담 내용은 스마트폰(삼성 갤럭시 S23) 음성녹음 애플리케이션과 네이버 클로바 노트 프로그램, 녹음기(KVR-21)를 활용해 총 3대의 기기로 녹음하였다. 전사는 면담 후 3일 이내에 한글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신명조 10포인트로 작성하였으며, 전사 분량은 A4 58쪽이었다. 자료 분석 방법으로는 전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반복적 비교분석법을 실시하였으며, 개방 코딩 단계, 범주화 단계, 범주 확인 단계를 거쳐 자료를 분석하였다.

5. 연구의 진실성

연구의 진실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사는 면담이 종료된 이후 3일 이내에 실시하였으며, 의미 분석 시에는 의미 범주를 작성한 이후 언어재활사 1인과 특수교육과 교수 1인에게 검토받아 의미단위를 재조정하였다. 아울러 준비 과정에서 면담 가이드가 연구 문제에 적합한지, 연구 과정이 연구의 목적에 맞게 진행되고 있는지, 의미범주 도출과 연구 결과의 해석이 정확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검토받아 연구자의 주관성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였다.

Ⅲ. 연구 결과

이 연구에서는 청각장애아동 언어재활을 하는 언어재활사를 대상으로 청각장애아동 언어재활의 경험과 요구에 대해 알아보고자 초점집단면담(FGI)을 실시하였다. 면담을 통해 수집된 자료는 반복적 비교분석법을 통해 3개의 상위범주, 10개의 하위범주, 27개의 의미단위로 분석되었다. 이 연구의 의미범주 분석표는 <Table 3>과 같다.

<Table 3> Table of Semantic Category

Upper category	Subcategory	Unit of meaning
Language intervention for DHH children that requires both audiology and language intervention skills	Reasons for intervention for DHH childre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anguage intervention for DHH initiated due to academic interest - Language intervention for DHH started as a natural choice due to a double major - Language intervention for hearing impairment begun by chance
	Characteristics of intervention for DHH childre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ssential knowledge of audiology - Language intervention varies according to age, degree of hearing loss, and type of DHH - Classes accompanied by caregivers and different therapy room setups compared to general language therapy
Difficulties in language intervention for DHH children	Challenges in the intervention process for DHH childre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ifficulties in classes accompanied by caregivers - Problems due to long-distance transportation - The need for various roles as a SLP - Communication difficulties with sign language - Difficulties in preparing and using teaching materials
	Caregivers' low awareness on DHH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aregivers' lack of awareness about hearing aids - Difficulties due to caregiver characteristics such as grandparents or deaf parents - Excessively high expectations of caregivers
	Difficulties in improving the expertise of SLPs regarding DHH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HH not being a major category in language intervention - Lack of opportunities to learn Auditory-Verbal Therapy (AVT)
	Difficulties in collaborative approaches among professional group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bsence of a cooperation system to strengthen collaboration - Inadequate system for sharing information and materials
For successful language intervention of DHH children	Improvement of awareness on DHH and enhancement of access to sign language educ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eed to improve awareness on DHH among caregivers and school teachers - Strengthen access to sign language education and diversify sign language teaching aids and materials
	Expansion of education to enhance expertise in language intervention for DHH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xpand continuing education related to language intervention for DHH - Expand educational support to enhance expertise related to hearing aids and cochlear implant
	Establishment of a systematic education system for DHH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stablish a lifetime support system for DHH - Strengthen DHH education for teachers and schools - Educational support for DHH children with multiple disabilities
	Collaborative approach among professional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stablish a cooperation system among professionals - Establish a system for information exchange

1. 청각학과 언어재활 기술이 모두 필요한 청각장애아동 언어재활

1) 청각장애아동 중재 계기

(1) 학문적 관심으로 시작된 청각장애 언어재활

청각장애 특수학교에서 특수교사로 근무하면서 청각장애아동의 조기 언어재활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어 대학원에서 언어병리학을 전공하고, 더 다양한 대상자들을 만나 그들의 조기중재에 힘쓰기 위해 언어재활사로 활약하고 있는 참여자도 있었고, 학부 때부터 갖고 있었던 청각장애에 대한 학문적 관심으로 취업 시 청각장애 언어재활 센터를 선택했다는 참여자도 있었다.

저는 청각장애 특수학교에서 근무했었고 그때 특수교사로 재직할 당시에 인공와우가 막 시작돼서 인공와우를 착용하고 오는 친구들이 많았었어요. 그런데 인공와우를 착용한 친구들의 언어적인 접근이 뭔가 그동안에 제가 배웠던 것과는 다른 상황들이 전개되고 있어서, 일반대학원 언어병리학과에 진학을 하게 됐어요. 거기서 언어치료 학문에 대해 배우면서 청각장애 아이들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건 영유아 시기에 매우 중요한, 청각장애 언어재활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쪽으로 계속 공부했는데, 학교에서는 이제 대상자들을 더 다양하게 많이 만날 수가 없어서... 사실 센터로 나와서 청각장애 아이들을 더 많이 만날 수 있게 됐습니다. (참여자 A)

저는 실습할 때 청각장애 아동을 해보고 싶었는데, 사실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 2명 밖에 없어서 못 했어요. 취업할 때 청각장애 언어치료 기관이 있다는 걸 알게 돼서 입사하게 되면서 시작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참여자 E)

(2) 복수전공에 따른 자연스러운 선택으로 시작된 청각장애 언어재활

학부에서 언어재활과 청각학을 복수전공을 한 경우는 두 가지 전공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처음부터 청각장애 언어재활을 선택해 시작한 참여자도 있었다.

저는 들어가게 된 학부가 언어치료 청각재활학부였는데 학교 시스템적으로 복수전공을 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어서, 그렇게 저도 복수전공을 하게 됐고, 그렇게 해서 갖게 된 2개의 자격증을 다 활용하는 직업을 갖고 싶어서 청각장애아동을 중점적으로 치료하는 기관에 취업하였습니다. (참여자 C)

(3) 우연한 기회로 시작하게 된 청각장애 언어재활

학부 때는 청각장애에 대해 잘 몰랐다가 우연한 기회로 청각장애아동 언어재활 기관에 취업하게 되면서, 현장에서 대상자들을 직접 만나면서 관심을 갖고 청각학을 공

부하여 청각장애아동 언어재활 전문가로 활약하는 참여자도 있었다.

저는 00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집 근처인 00에 너무 오고 싶었어요. 마침 00시에 언어치료사를 구한다는 공지가 있어서 와 보니까 청각장애를 전문으로 하는 센터였어요. 사실 저는 학교 다닐 때는 청각장애에 대해서 전혀 몰랐어요. 청각 관련된 학부도 없었고, 언어치료만 공부했기 때문에 단순히 언어발달 중재만 할 줄 알았는데, 센터 들어와서 청각장애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면서, 아이들을 만나고 중재를 하게 되었어요. (참여자 B)

2) 청각장애아동 중재 특징

(1) 필수적으로 필요한 청각학 지식

청각장애아동 언어재활을 위해서는 청각학 지식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하였다. 단순 언어장애나 조음장애, 지적장애 등 다른 발달장애 영역들과 달리 청각장애아동 언어재활은 언어재활 전공만으로는 제한적일 수 있으며, 청각학 기초와 청각장애에 대한 이해 없이는, 전문적이고 성공적인 언어재활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일단은 청각장애 언어치료라고 하면, 언어치료 학문으로만 존재를 할 수가 없고요, 청각학적인 베이스가 없이는 사실 청각장애 언어치료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계신 선생님들 대부분이 청각이랑 언어 복수전공을 다 하고 나오신 선생님들이고... (중략)... 사실 단순 언어발달이나 조음장애, 지적장애 등 다른 발달장애 영역들은 언어치료 학문만으로도 중재나 재활이 어느 정도 가능하지만... (후략) (참여자 A)

(2) 연령, 청력손실 정도, 청각장애 유형에 따라 달라지는 언어 중재

청각장애아동 언어 중재는 청각장애 조기발견 및 조기중재가 매우 중요하며, 청각 구어치료(AVT: Auditory-Verbal Therapy)를 주요 원리로 삼아 진행한다고 하였다. AVT는 보청기, 인공와우 등 청각 보장구를 착용한 후 보청청력을 활용해, 듣고 말하기를 의사소통의 주요 전략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치료 방법이다. 그리고 청각장애아동 중재 시에는 아동의 연령, 청력손실 정도, 청각장애 유형 등을 고려해 언어재활 목표와 중재 내용을 결정한다고 하였다.

연령, 청력손실 정도, 청각장애 유형에 따라서 예후가 천차만별이긴 하지만 대부분 듣기를 기반으로 한 청능언어 훈련을 하는 것 같고요...(중략)... 최근에는 아이들이 7~8개월에도 인공와우 수술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졌고, 보청기 착용 시기는 기본 3개월 아주 늦어도 6개월이라는 얘기가 조금 더 시기를 앞다퉈서 치료 접근을 할 수 있도록 하구요. 학령기에 들어서면 의사소통 수단을 확립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수단을 쓸지...

구어 사용자가 될지, 구어 플러스 수어 사용자가 될지에 대한 것들이요. 청소년기는 주된 의사소통을 진짜 잘 활용할 수 있게 돕는 것 같아요. (참여자 B)

(3) 양육자 동반수업 및 일반 언어치료실과는 다른 치료실 구성

청각장애아동 언어재활은 청각구어치료(AVT) 원리에 따라 부모 및 주 양육자가 아동과 함께 수업에 참여하는 큰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는 아동과 생활하는 시간이 많은 부모나 주 양육자가 아동의 듣기와 구어발달의 촉진자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며, 이는 청각구어치료의 기본 원칙 중 하나이다. 아울러 청각장애아동의 듣기 능력을 최대한으로 높이기 위해 치료실 구성을 일반 언어치료실과는 달리 듣기 중심으로 구성한다고 하였다.

엄마나 주 양육자가 같이 들어와서 수업을 한다는 점이 제일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치료 같은 경우에는 거의 어머님들이 밖에서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저희는 같이 수업하면서 어머님들한테 어떻게 집에서 일상생활에서 자극을 주면 좋을지를 코칭 해드리니까 어머님들이 훨씬 더 잘 이해하는 것도 같고, 아이들이 센터에 와서만 받는 게 아니라 적절하게 집에서도 받을 수 있으니까 다른 장애 아이들보다는 좀 더 성장하는 게 눈에 보이지 않나 싶어요. (참여자 E)

일단 치료실 세팅 자체가 듣기 중심의 세팅으로 돼 있는 게 굉장히 강한 특징 중의 하나인 것 같고, 예를 하나 들자면 보통 언어치료실은 아이들의 의자가 굉장히 낮게 배치되어 있거나 한데, 청각장애는 아이의 귀 높기와 선생님의 입 높이를 최대한 가깝게 하기 위해서 아이들을 'high chair'에 앉힌다든가 하는 이런 것들이 크게 다른 점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 외에도 연령대가 굉장히 다양한 게 큰 특징인 것 같아요. (참여자 D)

2. 청각장애아동 언어재활 중재의 어려움

1) 청각장애 중재 진행과정의 어려움

(1) 양육자 동반 수업의 어려움

청각장애아동 중재는 양육자 동반 수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아이뿐만 아니라 부모나 주 양육자의 성향을 고려해서 수업을 진행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하였다. 특히 부모가 수업에 잘 참여하지 않거나, 참여 태도가 적극적이지 않으면 어려움이 크다고 토로하였다.

가장 큰 거는 부모님이 들어오시기 때문에 부모님과 합의 맞춰야 한다는 거. 부모님의 성향도 봐야 하고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야 해요. 아이만 고려하는 게 아니고 부모님도 고려해서 같이 나아가야 하니까 그게 가장 어려워요. (참여자 D)

(2) 지역적 원거리 이동에 따른 문제

청각장애아동 중재는 청각장애 언어재활 센터가 전국적으로 많지 않고, 지역적으로도 편중되어 있어, 부모들이 수업을 위해 원거리 이동을 하는 경우가 많아 이에 따른 어려움이 크다고 하였다. 또한 청각장애아동 언어재활은 보장구를 착용하기 시작하는 생후 3개월 전후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많아 영유아들의 낮잠 시간과 수유 시간, 컨디션이 수업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하여 수업을 구성하고 진행해야 해서 어렵다고 하였다.

중재 기관이 지역적으로 편중이 될 수밖에 없는 건 재활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만한 능력과 역량을 갖춘 인력들이 현재 별로 없고, 그런 세팅을 갖추고 있는 기관들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 것 같아요. 원거리 이동에 따른 대상자들의 경제적, 시간적 부담에 대해서 저희가 심리적인 압박을 좀 받죠...(중략)... 아이들이 원거리로 이동하면 컨디션 조절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영유아의 경우에는 낮잠 시간, 식사 시간이 이동 거리에 다 걸리면서 뭔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이들의 컨디션 조절에 어려움을 많이 겪으니 수업의 질이 아이들의 기분에 따라서 컨디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점, 그게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참여자 A)

(3) 요구되는 다양한 역할

언어재활사는 청각장애아동 언어재활을 담당하면서 언어재활사 역할 외에도 청능사, 심리상담사, 인생 상담 등 현장에서 다양한 역할을 요구받고 있으며, 청각장애아동과 부모의 어려움들을 이해하고 그들의 조력자가 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고 하였다.

언어치료사로서의 역할도 있긴 하지만, 보장구 착용을 결정할 때 어머님들이 되게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중략)... 이럴 때 옆에서 상담을 해 주고, 청능사분들이 해주는 역할도 어느 정도는 저희가 청각 정보를 기반으로 저희 생각도 이야기해 줄 수 있고 인생 문제, 육아 관련한 여러 가지 상담이라든가, 힘들다고 했을 때 심리 상담도 해드리기도 하고요. 옆에서 위로해 드리기도 하고, 응원해 주는 역할도 해 주고요. (참여자 E)

청각장애 아이들이 처음에 저희에게 올 때, 저희는 인생의 첫 선생님인 것 같아요. 지금 이 아이의 결함이 뭔지, 성향은 뭔지... 필요한 것들을 빨리빨리 캐치해서 채워 넣고, 그걸 부모님들이 오해해서 듣지 않게 잘 전달하고 이게 거의 초창기에 아주 큰 역할 중의 하나인 것 같고...(중략)... 학령기 아동들에게는 고민 털어놓는 상대, 칭찬받고 싶은 상대의 역할을 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배우러만 오는 곳이 아니고, 마음을 터놓으러 오는 곳이기도 한 것 같아요. 자기 마음을 이렇게 많이 알아주는 사람, 자기의 상황을 이렇게 잘 아는 사람도 없고 하니까. (참여자 C)

(4) 수어 의사소통의 어려움

청력손실 정도가 심도 이상으로 크거나, 달팽이관 기형이나 청신경 이상으로 인공와우 수술 후에도 구어만으로 언어발달이 어려운 아동의 경우에는 수어를 병행 사용해, 더 원활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었다. 그러나 아동과 언어재활사 모두 수어 사용에 능통하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 수준 높고 의미 있는 의사소통에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학령기 전농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수어를 제1 언어로 사용하잖아요. 필답으로 나눌 수도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수어로 나누는데, 제가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키워드를 굉장히 잘 쓰니까 그런 부분들을 의사소통할 때... 뭔가 나도 그 아이의 생각을 조금 더 수어로 잘 이해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것에 대해 미안함과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참여자 E)

(5) 교구, 교육자료 준비와 사용의 어려움

청각장애아동 청능훈련 및 청각중복장애 아동을 위한 교구, 교육자료가 부족한 상황에서 언어재활사들은 기존 언어재활 자료를 청능훈련 자료로 변형해 사용하는 것에 어려움을 토로하였다. 또한 아동들의 언어 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언어평가 검사 도구들이 일반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청각장애아동의 언어평가 시, 정확한 언어평가를 위해 고민하고 있었다.

청능훈련을 할 때, 상황에 맞춘 듣기 연습을 시켜야 할 때 오로지 치료사의 성대만 이용할 수는 없기 때문에, 다양한 듣기 자료들이 필요한데 저희에게 맞게 만들어진 자료들은 지금 거의 없죠...(중략)... 청능훈련 기본 자료 베이스들은 좀 적은 것 같아요. 사실 어휘를 활용하고 가르치기 위한 그림카드 이런 건 너무 넘쳐나는데, 듣기를 위한 자료들은 현실적으로 저희가 만들기에는 세팅도 없고, 여러 가지 장비도 없고, 우리가 성우도 아니고, 전문적인 기계들이 없어서 저희가 다 정확하게 만들어내기는 어렵죠. (참여자 A)

학령기 아이들 언어평가 LSSC(학령기 아동언어검사) 같은 긴 검사의 경우, 잘 못 듣는 친구들은 애가 이걸 언어적으로 몰라서 틀렸는지, 잘 못 들어서 틀렸는지 이런 부분들을 헤아리는 게 조금 한계가 있었던 것 같고, 화용언어검사 KOPLAC 같은 경우 컴퓨터로 진행하니까...(중략)... 인공와우 착용 친구들은 기계음을 듣기 어려워하거든요. (참여자 D)

2) 청각장애에 대한 양육자의 낮은 인식

(1) 보장구에 대한 양육자의 인식 부족

아동의 청력 수준이나 그에 맞는 보장구 착용에 대한 양육자의 인식 부족으로, 경도

나 중도 난청 아동의 경우 일상생활에서 보청기를 잘 착용시키지 않거나, 인공와우 수술 대상자임에도 보청기 착용을 고집해 청력에 맞는 재활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경도, 중도 아이들처럼 소리에 반응은 있는 친구들은 보장구를 잘 열심히 안 채우시는 거 같아요. 그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설명해도, 이해했다 하시지만 아이가 자꾸 이렇게 빼버리면 어머님들도 아동도 심리적으로 지쳐서 그냥 빼, 끼지 마라 이렇게 해버리는 경우가 좀 있어서... (참여자 D)

최근에는 인공와우 수술 대상자인데 보청기를 고집하는 부모님이 있었어요. 보청기로 계속 재활하겠다고 하시면 어쨌든 더 이상 강요할 수는 없으니... 그래서 아이가 어느 정도까지 듣고 있는지, 못 듣는 게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는 데 애쓰고 있어요. (참여자 C)

(2) 조부모 양육자, 농인 부모 등 보호자 특성에 따른 어려움

조부모 양육자이거나 부모님이 수어를 사용하는 농인 부모일 경우 보호자 특성에 따른 상담과 지원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였다. 조부모 양육자의 경우 아동을 교육 대상으로 보기보다는, 보육과 양육의 대상으로 보고 교육적 협조가 어려운 때도 있었으며, 농인 부모의 경우, 치료사와 수어로 상담이 원활히 이루어지기 어렵고, 문자나 문서 상담도 쉽지 않은 상황이 있다고 하였다.

부모가 농인인 경우 저희는 수어통역사가 아니기 때문에 수어 사용에 서툰 치료사 입장에서 그분들에게 저희가 하고 싶은 말들을 제대로 전달할 수가 없어요. 문자나 문서로 전달하지만 과연 그 문서를 제대로 읽었는지를 확인할 길이 잘 없습니다. 왜냐하면 돌아오는 답이 없거나 단답형이거나 엉뚱한 대답이 돌아오는 경우가 태반이어서 부모가 수어를 사용하는 농인인 경우에 정확하게 아이의 상태 그리고 아이의 상태에 대한 평가 결과를 전달하고, 집에서 무엇을 해주라는 요구를 하기가 좀 어려운 경우들이 있고...(중략)... 조부모인 경우에는 그분들은 아이를 교육의 대상으로 보기보다는 보육과 양육의 대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교육적인 접근을 하는 저희에게 협조하기에 다소 버거운 부분이 있죠...(중략)... 분명히 조부모님께 다 상담을 했음에도 그 내용 전달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또다시 이중, 삼중의 부모 상담을 해야 하는 시간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요. (참여자 A)

(3) 지나치게 높은 양육자의 기대

언어재활사는 청각장애아동 양육자의 기대치 조절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였다. 특히 아동이 난청 외에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기타 감각장애 등 중복장애를 가지고 있으면, 양육자는 아동의 인지적, 사회적, 정서적 문제를 고려하지 않고, 청각적 결함의 해

소만으로 아동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그로 인한 양육자의 높은 기대치는 오히려 아동의 현재 상황을 파악하여 적합한 목표를 설정하는 데에 있어 어려움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하였다.

영유아기에는 영유아 건강 검진을 하니까 각 파트별로 언어, 인지, 사회성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엄마들이 쭉 보니까 거기서 정보들을 좀 알아 가는데, 사실 그 영유아 검진 시기가 끝나면 알 수 있는 게 없고...(중략)... 어떤 청각장애 어머님들은 아이가 아무리 심각한 타 장애를 갖고 있어도 '우리 아이의 주 장애는 청각장애야. 안 들려서 말을 못 하는 거지 인지가 나빠서 말을 못 하는 게 아니야!'라는 강한 믿음과 신념이 있으신 분들이 있어서 그런 분들의 기대치 조절이 어려워요. (참여자 A)

3) 청각장애에 대한 언어재활사의 전문성 신장의 어려움

(1) 언어재활의 주요 장애 범주에 속하지 않는 청각장애

언어재활사들은 청각장애가 언어재활 영역의 주요 5대 장애에 속하지 않아 언어재활 학부 과정에서부터 청각장애에 대한 교육을 충분히 받을 수 없고, 청각장애 재활에 접근할 기회가 많지 않음을 지적하였다.

언어재활사협회가 있고 청각언어재활학회도 있는데 그런데도 그 두 학회를 제치고 대한청각학회에서 AVT를 여는 이유는 여전히 언어재활이라는 과목 안에 언어재활사들이 인식하고 있는 장애 영역, 5대 장애 안에 청각장애가 들지 못하는 이 슬픈 현실에 밀리는 거죠. 청각장애가 차지하는 비율이 낮다 보니 수적으로도 이걸 담당할 인원, 하고 싶어 하는 인원이 적은 거죠. 근데 사실 학부생들 입장에서도 이게 뭔지 알면 할 수도 있는데 이게 뭔지조차 알 만한 기회도 학교에서 주지 않고 있잖아요. 5대 장애가 아니라는 이유로 과목 수가 현저히 적잖아요. (청각장애 관련) 전공필수 과목이 하나도 없어요. (참여자 A)

(2) 청각구어치료법(AVT)을 익힐 기회의 부족

참여자들은 청능재활을 익힐 기회가 부족하다고 토로하였다. 약 10여 년 전부터 대한청각학회에서 청각구어치료(AVT) 교육을 시작하게 되어 배움의 길이 열렸지만, 교육 가능 인원과 교육 관련 정보가 제한적이며, 대부분 외국 자료가 많아 접근성이 떨어지고 언어재활사들이 직접 번역을 해서 봐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고 하였다.

정말 청각장애를 안 해보신 분들은 AVT 교육이 어디에서 열리는지, 어디서 신청해야 하는지조차 모르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사실 1년에 몇 번 안 열리다 보니까 많이 들을 수도 없고, 그런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참여자 E)

일단 청능재활을 하는 사람이 적다 보니 당연히 그런 프로그램도 수요가 적고, 프로그램 자체도 되게 부족했는데, 한 10년 전부터 그나마 대한청각학회에서 AVT를 들여오게 되면서 관련된 교육들이 조금씩 생겨나고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공개된 자료들은 외국 자료들이라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일일이 번역해서 봐야 하는 불편함이 있죠. (참여자 A)

4) 전문가 집단 간 협력적 접근의 어려움

(1) 협력 강화를 위한 협력 시스템의 부재

참여자들은 전문가 집단 간 협력적 접근의 어려움 중 하나로 협력 강화를 위한 협력 시스템의 부재를 이야기하였다. 발달장애 아동들의 전반적인 발달을 지속해서 확인하고 지원하는 시스템이 없다 보니, 각 영역 전문가 간의 협업이 하나의 시스템하에서 이루어지기보다는 개개인의 협업 의지와 역량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고, 보상 체계도 미흡한 상황이었다.

발달상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을 두고 모든 파트의 치료사, 의사, 보호자, 심리 파트들이 전반적인 발달 체크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는 시스템이 없다 보니, 저희가 해야 할 역할의 폭이 되게 넓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선불리 누군가를 평가해서 진단까지 내릴 수 있는 사람들은 아니기 때문에 뭔가 좀 어려움이 발생하면, 해당 과의 진료를 받아볼 것을 권유하는 정도로밖에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협업이 중요하지만 협업에 대해서 어려움을 많이 느낍니다. (참여자 A)

협업은 정말 너무 좋은 시스템인데...(중략)... 그 일을 하는 것에 대한 페이(pay)가 우리에게 합당하게 보상되지 않잖아요. 그게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봉사나 헌신의 정신으로 이걸 해낼 것이냐 너무 좋은데 그게 한두 명이면 가능하지만... (참여자 B)

(2) 정보 교류를 위한 자료 공유 체계 미흡

참여자들은 전문가 간 정보 교류를 위한 자료 공유 체계의 미흡을 이야기하면서, 아동이 다니는 학교나 병원, 청각 보장구 관련 기관과 언어재활 기관 간의 정보 교류가 원활하지 않거나 일방적인 경우가 많다고 하였다. 아울러, 자료 공유 체계 미흡으로 인한 혼란과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자료 요청 시 서류 양식 제공과 함께 필요한 자료의 명확한 요청이 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였다.

저는 약간 양식을 줬으면 좋겠어요. 뭔가 요청을 할 때 양식을 주면서 거기에 맞춰서 작성하는 건 괜찮은데, 가끔 학교에서 언어치료실에서 뭐 하고 있는지 달라고 하면 내가 어디까지 줘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보내고 나서 저도 학교에서 뭘 하고 있는지 요청했는

데 답변이 안 오는 거예요. 저만 준 거죠. 그리고 청각장애 아동이 병원에서 매핑을 할 때 뭔가 서류를 달라고 하더라고요. 양식이 전혀 없으니까 뭘 줘야 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참여자 C)

저는 (학교에서) 전화가 와서, 치료실에서 뭐 하고 있는지, 향후 어떻게 해줘야 하는지에 대해 얘기 드렸어요. 그러고 나서는 그냥 끊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만 얘기를 하고, 저만 주고 그렇게 끝이고... 학교에서는 아이가 어떤지 연락이 오지 않아요. (참여자 E)

3. 성공적인 청각장애아동 언어재활을 위하여

1) 청각장애 인식개선과 수어 교육 접근성 강화

(1) 보호자와 학교 교사의 청각장애 인식개선 필요

참여자들은 학교 교사나 보호자의 청각장애 인식개선의 필요성에 관해 이야기하였다. 청각장애아동들은 대부분 일반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일반학생들과 함께 생활하는데, 교사들이 청각장애에 대해 잘 모르다 보니 교육 시간에 보장구 착용 및 교육적 지원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고, 가정에서도 타인의 시선이나 보호자 편의 등을 고려해 보장구를 잘 착용시키지 않는 경우도 있음을 지적하면서 청각장애 인식개선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저는 청각장애 인식개선이 너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사람들이 보청기나 인공와우 기기에 대한 인식 자체가 너무 없고, 그리고 특수교사들조차도 다른 타 장애 영역에 비해서 청각장애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부족하고, 특히 10년 차 이상 오래되신 선생님들의 경우에는 본인들이 학교에 다닐 때 인공와우를 대상으로 한 청각장애에 대한 교육을 받아보신 적이 없는 분들이 많다 보니 농교육과 난청교육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청각장애 아이들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이 일반인 대상으로도 필요하고 교육 현장에 있는 교사들, 특수교사들에게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자 A)

아무리 이야기해 드려도 유치원에서 (청각 보장구를) 쓰다가 잘 안 쓴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유치원 끝나고 집에 갈 때 엄마가 확인해 보면 기기가 꺼져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중략)... 일반인들은 정말 모르시는 것 같아서 인식개선과 교육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참여자 E)

(2) 수어교육 접근성 강화 및 수어 교재교구의 다양화

참여자들은 청각장애아동이 보청기나 인공와우를 착용했음에도 구어 사용이 어려운 경우 구어와 수어를 병행 사용하여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었다. 또한 청각장애아동의 청인 부모들이 아동과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부모들의 수어교육을 담당하

고 있기도 하였다. 참여자들은 수어가 필요한 아동들을 위한 수어 교재나 교구, 수어 교육 프로그램의 다양화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였다.

저는 수어교육의 접근성, 저희가 수어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조금 더 자주, 덜 어려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요즘은 줌(zoom)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줌으로 열리는 걸 아직 못 찾은 것 같고 잘 열리지도 않더라고요. (참여자 D)

수어를 제1 언어로 선택한 아동들의 어머니가 건청인 경우에 수어교육을 제가 보통 헤드리는 경우가 많아요. 부모님이 수어 교실을 찾아갈 수 있는 여건이 잘 안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수어교육 프로그램들이 많았으면 좋겠고요. 또 부모님께 집에서 책을 읽어주라고 했을 때, 그냥 책을 읽어주는 것과 수어로 읽어주는 게 굉장히 달라서... 그런 콘텐츠가 유튜브에 있어도 수가 적어서, 수어 동화책도 좀 다양하게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하니 만들어지면 좋겠어요. (참여자 E)

2) 청각장애 언어재활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육 확대

(1) 청각장애 언어재활 관련 보수교육 확대

참여자들은 전문성 신장을 위해 청각장애 언어재활 관련 보수교육 확대를 요구하였다. 언어재활 보수교육 중에 청각장애 관련 보수교육은 상대적으로 수가 적고, 한국청능사협회에서 열리는 청각 보수교육의 경우 오프라인으로 열리는 경우가 많아 근무로 인해 참여가 어렵다고 하였다. 따라서 청각장애 언어재활 관련 보수교육이 더욱 풍부해지고 다양한 방식으로 확대되면 좋겠다고 요청하였다.

보수교육도 청각 보수교육은 상대적으로 매우 적거든요. 어찌 보면 현재 희소성이 있어서 하고 있는 저희로서는 후대의 양성을 위해서 보수교육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자 A)

청능사협회에서도 보수교육이 대면으로 열린다고 하면 서울에서 평일 3시간 이렇게 열리니까, 이러면 사실 일하는 데 가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그것도 서울에 살지 않으면 어렵죠. 다양한 방식으로 확대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참여자 C)

(2) 청각 보장구 관련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육 지원 확대

청각장애아동 언어재활 시 청각 보장구는 필수 불가결하므로, 병원이나 보청기, 인공와우 전문 기관뿐 아니라 청각장애 재활을 담당하는 언어재활사나 교사들에게도 청각 보장구 관련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육 지원이 확대되면 좋겠다고 하였다. 또한 청각 보장구 홈페이지 내용이나 구성이 더 접근성이 쉽도록 개선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이야기하였다.

관련 업체들이 교육을 좀 강화하면 좋겠어요. 그런데 보청기 업체, 인공와우 업체들이 사실 병원에 집중되어 있잖아요. 모든 영업 활동과 정보 제공 자체가 병원과 보청기 전문센터들에 집중이 되어 있지 사실 언어센터들은 부족하죠. 그렇다 보니 치료사들이 새로운 것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많지 않아요. 관련 업체들이 교육 홍보를 조금 더 청각장애를 다루는 사람들에게 예를 들면, 청각장애 특수교사나 청각장애 언어재활사에게도 해주면 좋겠어요. 청능사뿐 아니라 이 모든 사람이 세트로 항상 관련 교육을 들을 수 있게 연수의 기회를 좀 많이 주면 좋겠어요. (참여자 A)

제조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좀 쉽게 볼 수 있게 정리되어 있다거나, 업데이트가 잘 돼 있다거나 하면 좋겠는데, 영어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제품 모델과 상세 설명이 보기 불편했던 점이 많아서 접근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언제 어디서든 찾아보기 좋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약간 멋들어지게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참여자 B)

3) 체계적인 청각장애 교육시스템 구축

(1) 청각장애 생애지원 시스템 구축

아이가 출생하여 난청이 발견되면 치료 및 재활, 교육에 대한 모든 것을 부모가 책임지고 알아서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하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참여자들은 향후 체계적인 청각장애 교육을 위해 청각장애 생애지원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이야기 하였다.

생애지원시스템이 필요해요. 태어나면서부터 아이가 난청이면, 어떤 병원을 가야하고 어떤 치료를 받아야 하고, 학교는 어디를 가야 하는지, 일반학교에 갔는데 적응 못하면 특수학교에 갈지, 아니면 일반학교에 머무르면서 문자통역을 받을지, 수어통역을 받을지 그런 모든 것들을 지금은 부모가 알아서 다 찾아서 해야 하는 거잖아요. (참여자 A)

적절한 학습 지원이 있다면 문자 통역을 받든 수어 통역을 받든 옆에 전담 선생님이 있으면 그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학교를 잘 다닐 수 있을 텐데 현실은 어려움이 많지요. 인지가 되는 친구들은 사실 특수학교에 가면... 6학년 수준의 인지를 가진 아이와 1학년 수준 인지를 가진 아이가 같은 교실에서 같은 과목을 듣는 거는 말이 안 되니까... 그러니 인지능력이 어느 정도 있다면 그거를 따라갈 수 있게 시스템상으로 교육권을 보장해 주는 의미로 교실에서 문자통역과 수어통역을 요구했을 때 그게 잘 받아들여지게 중요한데, 비용 문제 등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아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참여자 B)

(2) 교사와 학교의 청각장애 교육 강화

일반학교에 재학 중인 청각장애아동이 많은 현실에서, 청각장애아동이 학교에서 방치되지 않기 위해서는 교사와 학교의 청각장애 교육 강화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특히 청각장애아동이 일반 교실에서 구어로 원활히 수업을 받기 위해서는 교사들의 FM 시

스텝 사용이 중요한데, 특수교육지원센터 산하 교사들 외에는 이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아, 언어재활 시간뿐 아니라 학교에서도 FM 시스템 사용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사와 학교 차원의 청각장애 학생 지원이 강화되었으면 좋겠다고 주장하였다.

교육 현장에서 교사가 먼저 바뀌면 학생과 또래 교육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이고, 나머지 사회적인 교육은 얼마든지 캠페인을 통해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겠고요. 일단 저는 교사들의 인식이 개선되려면 청각장애 관련된 교육 연수들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 가장 첫 번째가 FM 시스템에 대한 도움을 교사들이 주어야 하는데 현재 특수교육지원센터 산하에 있는 선생님들 이외에는 그 기계가 뭘지 그것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참여자 D)

청각장애아동들은 보통 일반학교에 많이 다니잖아요. 그런데 일반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면 좀 방치되더라고요. 또래 친구들도 청각장애 관련 교육을 많이 받지 못했다 보니... 아이가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니 학교에 안 가려 하고, 가도 인공와우 빼고 가서 특수반에 그냥 앉아 있다 오고... 이렇게 되니까 그 친구는 사실 학교에서 얻는 것도 없고 그냥 방치되더라고요.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학교 차원의 청각장애 교육은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참여자 C)

(3) 청각중복장애 학생 교육 방안 강구

청각중복장애아동은 청력 문제만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보청기나 인공와우 같은 청각 보장구 착용만으로는 정상 발달에 근접한 구어 및 언어발달을 성취하는 데 어려움이 클 수밖에 없다. 참여자들은 청각중복장애 아동들의 언어발달 증대 및 교육에 관한 고민을 하고 있었으며, 아동들이 가진 중복장애의 특성, 청력 수준과 연령 등을 고려하여 증대 목표를 잡고 재활을 진행하고 있었다. 아울러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로 이어지는 교육 환경 배치에 대한 부분들도 고려하여 청각장애아동 언어재활에 힘쓰고 있었다.

청각중복장애 아동들에 대한 교육 고민도 많아요. 보장구를 착용하고 소리는 듣지만 인지나 다른 중복장애 때문에 들은 걸 확인하지 못해서 언어로까지 발전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이 아이의 의사소통을 구어로 가져갈지, 아니면 구어와 수어로 가져갈지, 아니면 독화를 사용할 건지, 독화를 포함해서 사용할 건지, 치료 시간을 주 몇 회를 할 건지, 치료 방법은 지금 당장 AVT 가족 치료가 필요한지, 아니면 개별 치료가 필요한지, 그룹 치료가 필요한지... 그리고 이 아이가 치료 현장에만 있을 게 아니라 일반 어린이집, 유치원을 다녀야 하는 상황이라면 특수교육 기관에 편성 배치할지, 아니면 그냥 일반 아이들과 섞여서 자연스러운 소리를 좀 더 많이 듣게 하는 게 목표가 될지, 아이들의 교육 환경 배치에 대한 것들이 모두 고려 대상이에요. (참여자 A)

4) 전문가 간 협력적 접근

(1) 전문가 간 협조 시스템 구축

참여자들은 성공적인 청각장애아동 언어재활을 위한 전문가 간 협력적 접근을 위해 전문가 간 협조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전문가 간 협력적 접근을 언어재활사, 의사, 청능사, 특수교사 개개인의 소신과 역량에 맡길 것이 아니라, 전문가 간 협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컨트롤 타워 기능을 하는 사회적 지원이나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우리 센터는 아동 상황에 대해서 의사에게 바로 코멘트하고 그들도 우리에게 자료를 잘 공유해 주고 있고, 의사, 청능사, 특수교사 그리고 언어재활사가 윈스탑 시스템으로 구축돼서 협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그런데 모든 병원, 모든 청능사와 하는 것도 아니고, 마음 맞는 병원의 의사 선생님, 마음 맞는 몇몇 청능사, 특수교사들과 이루어지고 있는 윈스탑 시스템인 거지, 어떤 사회적인 지원이나 시스템 안에서 돌아가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중략)... 그런 컨트롤 타워 없이는 협업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예요. (참여자 A)

체계적인 시스템 필요하지요. 개별화교육계획 협의회에 사실 원래 치료사도 들어가는 건데 한 번도 부르지 않았어요. 그냥 엄마 통해서 전화로 뭐 하냐고 묻거나 뭐 하는지 갖고 오라고.... 그렇게 하기보다는 정식으로 요청해주시면 좋겠어요. (참여자 D)

(2) 정보 교류를 위한 자료 공유 체계 구축

성공적인 청각장애아동 언어재활을 위해 자료 공유 체계 구축의 필요성도 이야기하였다. 전문가 간 원활한 정보 교류를 위해서는 서로 간에 통용되는 자료에 대한 공유와 양식의 통일 등이 우선 필요하다고 하였다.

청각장애아동이 매핑 하러 갈 때 병원에서 서류를 달라고 했는데, 양식이 전혀 없으니 까 뭘 줘야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거기서 요청하면 뭐든 써서 보내기는 해야 하는 거잖아요...(중략)... 뭘 요구하는지 명확하지 않은 요청들이 있어요. (참여자 D)

이비인후과 학회에서도 협업에 대해서 한 10년 전부터 얘기가 나왔고, 그래서 협업을 위해 일단 페이퍼 양식부터 통일해야 한다고 했었어요. 병원 검사 결과지 양식을 통일하자고 해서 만들었음에도 병원들이 그 양식을 사실 쓰지 않죠. 힘들게 만들었지만 그 양식을 쓰지 않고.... 강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정보 교류를 위한 자료 공유 체계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참여자 B)

V. 논의 및 제언

1. 논의

이 연구에서는 청각장애아동 언어재활에 대한 언어재활사의 경험과 어려움, 요구를 알아보았다. 연구 참여자는 임상에서 청각장애아동 언어재활을 담당하고 있는 언어재활사 6명이며, 이들을 대상으로 초점집단면담(FGI)을 진행하였다. 면담을 통해 수집된 자료는 반복적 비교분석법을 거쳐 3개의 상위범주, 10개의 하위범주, 27개의 의미단위로 분석되었으며, 분석된 결과를 바탕으로 하는 논의는 다음과 같다.

1) 청각학과 언어재활 기술이 모두 필요한 청각장애아동 언어재활

청각장애아동 언어재활에 관한 언어재활사의 중재 경험을 분석한 결과, ‘청각장애아동 중재 계기’와 ‘청각장애아동 중재 특징’ 두 가지 하위범주가 도출되었으며, 6가지 의미단위가 추출되었다. 이를 하위범주별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각장애아동 중재 계기에 대해 살펴보면, 본 연구 참여자들의 청각장애 중재 계기는 학문적 관심과 우연한 기회, 청각학 복수전공에 따른 선택이었다. 타 장애 군보다 청각장애 대상자 수가 적음에도 불구하고(교육부, 2023), 청각장애 중재를 선택하게 된 계기에는 개인적 관심 및 청각 관련 지식 여부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김명수(2016)는 언어재활사의 언어치료 직무에 관한 인식 연구에서, 언어재활사가 가장 많이 다루고 있는 임상 사례는 언어발달장애(55.85%)이고, 청각장애(2.35%)는 유창성장애와 뇌성마비(1.76%) 다음으로 적게 다루지는 영역이라고 하였다. 자신 있는 치료 영역에서도 위와 비슷한 순위의 결과를 보였는데, 언어발달장애 치료를 가장 자신 있어 하였고, 청각장애 재활과 희귀질환 관련 재활은 자신감과 전문성에서 부족함을 느낀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보면 치료 대상자 수가 적음에도, 언어재활사가 청각장애 중재를 선택하는 계기는 청각학 관련 전문성의 유무가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청각장애아동 중재는 아동의 청력손실 정도, 연령, 청각장애의 유형과 청각보장구 특성 등을 알고, 이를 고려하여 중재해야 해서 청각학 지식이 필수적이라고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Geer(2006)는 청각장애 중재를 위해서는 일반적인 언어장애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청각학 및 청각보장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며, 나아가 청각보장구의 관리 및 점검 능력 등을 필요로 한다고 하였다. 서중현과 유은정(2014)은 청각장애는 다른 장애영역과는 다른 지원이 요구된다고 하면서, 난청 수준과 유형, 인지

특성 등을 고려한 교수 방법, 청각장애학생의 독특한 언어적 요구를 고려한 의사소통 방법, 보청기나 인공와우의 관리 방법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 언어재활사는 청각 관련 전문성에서 부족함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연구를 보면, 청각장애 영유아 조기중재에 관한 실태조사 연구(윤미희, 윤미선, 2007)에서, 청각장애 영유아의 72.8%는 언어치료실, 18.6%는 청각장애학교, 8.6%는 장애인복지관에서 중재받고 있으며, 청각장애 영유아 언어재활은 주로 언어치료실에서 언어재활사가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언어재활사들은 스스로 청각장애 아동의 적절한 평가자(91.4%)이자, 교수자(100%)로 인식하고 있지만(박순길, 류성룡, 2016), 치료의 전문가적 자질 부분에서는 타 장애에 비해 전문가적 자질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치료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박정하, 2020). Henton과 Glade(2023)는 미국의 언어재활사 대학원 프로그램 분석 연구에서, 난청 진단 증가 추세로 난청 및 청각장애에 대한 언어재활사의 역할이 커지고 있음에도 대학원 프로그램이 이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언어재활사를 위한 대학원 수준의 청능재활 과정 및 임상 훈련 커리큘럼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러한 부분들을 종합하여 볼 때, 언어재활사는 청각장애아동 언어재활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지만, 청각학적 전문성 면에서는 부족함을 느끼고 있으며, 이의 해소를 위해 언어장애에 대한 지식뿐 아니라 청각학을 비롯한 청각 보장구에 대한 이해, 청능재활과 임상훈련을 필요로 함을 알 수 있다.

2) 청각장애아동 언어재활 중재의 어려움

청각장애아동 언어재활 중재의 어려움으로 ‘청각장애 중재 진행과정의 어려움’, ‘청각장애에 대한 양육자의 낮은 인식’, ‘청각장애에 대한 언어재활사의 전문성 신장의 어려움’, ‘전문가 집단 간 협력적 접근의 어려움’ 4가지 하위범주가 도출되었으며, 12가지 의미단위가 추출되었다. 이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각장애아동 중재는 양육자 동반 수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아이뿐만 아니라 부모와 주 양육자의 성향을 고려해서 수업을 진행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고, 특히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부모들과 함께하는 경우 원활한 수업 진행에 어려움이 크다고 하였다. 가족 중심의 청각구어치료(AVT)를 기반으로 하는 청각장애아동 중재는 부모가 개별 회기에 참여하여 아동의 듣기와 구어발달을 위한 주된 촉진자가 되도록 지도하고 안내한다. 부모의 질적이고 양적인 언어 표현이나 효과적인 의사소통은 아동의 언어발달과 의사소통 능력 발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부모 참여는 청각장애아동의 조기교육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오혜정, 2013). 그래서 부모가 청각장애아동 중재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아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부모지원을 통해 가족 중심의

조기중재가 강조되고 실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오혜정, 2013). Yoshinaga-Itano, Sedey, Mason, Wiggin 그리고 Chung(2020)은 4~7세 난청 아동을 대상으로 한 화용 언어 능력 종단연구에서, 생후 4년 동안 아동과 부모와의 대화 양과 7세 때 화용언어 능력 간의 강한 연관성을 강조하면서, 부모가 아동과 많이 대화하고 중재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하였다. 청각장애아동 중재는 양육자와 가족 참여 중재가 기반이 되므로, 선행연구들에서 언급하였듯이 부모지원을 통한 적극적 수업 참여 독려와 확대가 필요하다.

둘째, 전문가 간 협력적 접근의 어려움에 대해 논의해 보면, 연구 참여자들은 청각장애아동 중재에 있어서 전문가 간 협업의 필요성 및 중요성을 이야기하면서도, 협업에 따르는 시간과 비용에 대한 보상 문제, 전문가 간 협력적 접근의 어려움을 이야기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Page, Harrison, Moeller, Oleson, Arenas 그리고 Spratford(2018)의 연구와 Muncy, Yoho, 그리고 McClain(2019)의 연구와 맥을 같이 한다. Page 등(2018)은 청각장애아동 부모와 전문가(언어재활사, 청각장애 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청각장애아동 중재는 주로 언어재활사와 청각장애학교 교사가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언어재활사는 청각장애학교 교사보다 청각 발달 및 청각 기술에 대해 어려움을 느끼고, 청능사와의 의사소통 빈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이를 토대로 언어재활사와 청각장애학교 교사, 청능사 간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Muncy 등(2019)은 청각중복장애 학생들을 중재하는 학교 기반 언어재활사(school-based speech language pathologists)와 학교 심리학자(school psychologists)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연구 대상자들은 청각중복장애 학생들에 대한 훈련이나 경험이 충분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아울러 대상자들은 학제 간 협업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다른 전문가와 접근성의 어려움, 시간 문제 등을 협력의 장벽으로 느끼고 있다고 하였다. 요컨대 선행연구와 이 연구 참여자 모두 전문가 간 협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협업에 따른 시간과 비용의 문제, 전문가 간 협력적 접근의 어려움 등을 현실적인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성공적인 청각장애아동 언어재활을 위하여

성공적인 청각장애 아동 언어재활을 위한 요구에서는 ‘청각장애 인식개선과 수어 교육 접근성 강화’, ‘청각장애 언어재활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육 확대’, ‘체계적인 청각장애 교육시스템 구축’, ‘전문가 간 협력적 접근’ 4가지 하위범주가 추출되었으며, 9가지 의미단위가 도출되었다. 이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육 확대에 대해, 본 연구의 대상자들은 청각장애 언어

재활과 청각 보장구 관련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육 지원 확대를 요구하였다. 이는 Matsumoto, Mattingly, Pitts 그리고 Smith(2021)의 연구와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이들도 연구에서 청각장애 언어재활을 담당하는 언어재활사를 위한 교육지원 확대를 요구하였다. 자세히 살펴보면, Matsumoto 등(2021)은 미국 켄터키 지역 언어재활사 대상 설문조사에서, 언어재활사들이 학교에서 난청학생을 치료할 때 느끼는 편안함(comfort), 자신감(confidence) 및 지식(knowledge), 준비(preparedness)에 대해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난청 학생을 치료하는 데 있어 언어재활사의 편안함, 자신감, 지식 및 준비가 전반적으로 부족하며, 특히 청각 보장구를 착용하고 있는 난청학생들을 관리하고자 할 때 지식과 훈련이 부족하였다고 하였다. 아울러 다른 전문가들과 더 많은 협업, 다양한 형태의 지속적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 연구의 참여자들도 청각장애아동을 증재함에 있어 언어재활사의 청각학적 지식 및 훈련이 부족하다고 언급하면서, 청각장애 언어재활 관련 보수교육 및 청각 보장구 관련 교육의 확대 등 선행연구와 일치된 결과를 언급하였다.

둘째, 이 연구의 대상자들은 성공적인 청각장애아동 언어재활을 위해 교사 및 전문가들과의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자료 공유를 위한 정보 교류 체계와 협조 시스템 구축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협력적 접근을 요구하는 결과들은 박미혜(2015) 및 박진경과 최상배(2023)의 연구에서도 나타난다. 일반학교 교사와 특수학교 교사 대상 설문조사를 진행한 박미혜(2015)는 일반교사와 특수교사의 언어재활사 전문성에 대한 인식을 언급하면서, 체계적인 언어치료를 위해 교사와 언어재활사의 협력적인 체계 유지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박진경과 최상배(2023)는 언어재활사와 특수교사를 대상으로 한 개인별 심층면담 연구에서, 언어능력 제고, 수업의 효율성 및 질 향상을 위해 특수교사와 언어재활사 두 전문가의 다양한 협력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이를 위해 협력적 접근을 위한 제도적 지원, 두 전문가의 역량 강화 지원 및 협력적 접근에 대한 인식 변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Davis, Choi, Gordon-Hickey 그리고 Estis(2021)는 언어재활사와 청능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두 전문가가 협업에서 느끼는 장벽에 대해 언어재활사는 접근성(access)을, 청능사는 태도와 인식(attitudes and perceptions)을 꼽았다고 하면서, 전문가 간 접근성 강화 및 태도와 인식개선을 통한 협업 강화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선행연구들에서 보듯이, 전문가 간 협력적 접근 강화를 위해 언어재활사뿐만 아니라 타 전문가들도 협력적 접근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만큼, 향후 전문가 간 정보 교류 체계와 협업 시스템 구축 및 지속적인 학제 간 협력 실행과 더불어 협력 모델 개발과 협력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이 요구된다.

2. 제언

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는 언어재활사만을 대상으로 하였는데, 향후 연구에서는 언어재활사, 특수교사, 의사, 청능사 등 청각장애교육 관련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여 협력적 접근을 확대하는 방안 관련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이 연구는 언어재활사만을 대상으로 진행되었기에 연구 참여자를 청각장애학생과 양육자까지 확대하여 언어중재에 참여하는 주체들의 목소리를 듣고, 언어재활사뿐만 아니라 중재받는 학생 당사자와 부모의 경험과 요구도 함께 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 Brennan-Jones, C. G., White, J., Rush, R. W., & Law, J. (2014). Auditory-verbal therapy for promoting spoken language development in children with permanent hearing impairments. *The Cochrane Database of Systematic Reviews*, 3.
- Choi, S. B., & Lee, H. N. (2015). Inclusion supports for hearing impaired students of U.S and implications for Korea. *The Korean society of education for hearing-language impairments*, 6(1), 1-18.
[최상배, 이한나 (2015). 미국 청각장애학생 통합교육 지원과 시사점. **한국청각·언어장애 교육연구**, 6(1), 1-18.]
- Choi, Y. H., & Yoon, M. S. (2007). A Study of Early Intervention for Children with Hearing Impairment Diagnosed Through Infant Hearing Screening Test. *Journal of speech-language & hearing disorders (JSLHD)*, 16(2), 173-187.
[최윤희, 윤미선 (2007). 조기진단을 받은 청각장애 아동의 조기언어중재 실태에 관한 연구. **언어치료연구**, 16(2), 173-187.]
- Ciorba, A., Corazzi, V., Negossi, L., Tazzari, R., Bianchini, C., & Aimoni, C. (2017). Moderate-Severe Hearing Loss in Children: A Diagnostic and Rehabilitative Challenge. *The Journal of International Advanced Otolaryngology*, 13(3), 407-413.
- Davis, T., Choi, D., Gordon-Hickey, S., & Estis, J. (2021). Interprofessional collaborative practice trends between speech-language pathologists and audiologists. *Journal of Allied Health*, 50(2), 104-113.
- Geers, A. E. (2006). Factors influencing spoken language outcomes in children following early cochlear implantation. *Cochlear and brainstem implants*, 64, 50-65.
- Henton, A., & Glade, R. (2023). Graduate-Level Training of Speech-Language Pathologists

- for the Provision of Auditory Rehabilitation. *Perspectives of the ASHA Special Interest Groups*, 8(3), 455-463.
- Jang, J. J., & Chang, S. A. (2018). A Comparative Study on Working Memory Ability of School-Aged Children with Cochlear Implants or Hearing Aids. *The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Theory and Practice*, 19(3), 211-233.
[김재진, 장선아 (2018). 인공와우 또는 보청기를 착용한 학령기 청각장애 아동의 작업 기억 능력 연구.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19(3), 211-233.]
- Jeon, E. S., & Jeong, E. H. (2015). Survey on Satisfaction of Students with Hearing Impairment, Parents, and Teachers to Inclusive Education, *The Korean society of education for hearing-language impairments*, 6(1), 167-190.
[김응섭, 정은희 (2015). 통합교육의 만족도에 대한 청각장애학생, 학부모, 교사의 인식 비교. **한국청각·언어장애교육연구**, 6(1), 167-190.]
- Kim, E. H. (2022). Parents satisfaction and demand survey for speech therapy environment for children with hearing impairment in a pandemic. Master's thesis, Inha University.
[김은희 (2022). 펜데믹 상황에서의 청각장애아동 언어치료 환경에 대한 부모 만족도 및 요구조사. 인하대학교 상담심리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Kim, M. S. (2016). Speech-language pathologists' perception of their job. Master's thesis, Daegu University.
[김명수 (2016). 언어재활사의 언어치료 직무에 대한 인식. 대구대학교 재활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Lee, J. Y., Kang, E. H., & Lee, O. B. (2016). A Study of Vocabulary Intelligibility and Speech Naturalness of Children With Hearing Impairment. *Journal of speech & hearing disorders*, 25(4), 273-282.
[이지윤, 강은희, 이옥분 (2016). 학령기 청각장애아동의 단어 명료도 및 말 자연스러움 특성 연구. **언어치료연구**, 25(4), 273-282.]
- Lee, S. O., & Choi, S. B. (2016). The Effects of Family-centered Speech Intervention on the Receptive and Expressive Language in the Children with Cochlear Implant. *The Korean society of education for hearing-language impairments*, 7(1), 1-22.
[이서옥, 최상배 (2016). 가족중심 언어중재가 인공와우이식 유아의 수용 및 표현언어능력에 미치는 효과. **한국청각·언어장애교육연구**, 7(1), 1-22.]
- Matsumoto, A., Mattingly, R., Pitts, T., & Smith, A. F. (2021). Hearing loss: Investigating the comfort, confidence, knowledge, and preparedness of school-based speech-language pathologists. *Diversity and Equality in Health and Care*, 18(6).
- Ministry of Education (2023). *Statistics of special education 2023*. Sejong: Ministry of education.
[교육부 (2023). **2023 특수교육통계**. 세종: 교육부.]
- Muncy, M. P., Yoho, S. E., & McClain, M. B. (2019). Confidence of school-based speech-language pathologists and school psychologists in assessing students with hearing loss and other co-occurring disabilities. *Language, speech, and hearing services*

- in schools, 50(2), 224-236.*
- Oh, H. J. (2013). Parents Support for the Development of Communication Technology of Infants with Hearing Impairment Review of Transition Education for Inclusive Education. *The Korean society of education for hearing-language impairments, 4(2), 31-49.*
[오혜정 (2013). 청각장애유아의 의사소통 기술 향상을 위한 부모지원. **한국청각·언어장애교육연구, 4(2), 31-49.**]
- Oh, I. H., Choi, S. B., Kim, U. I., & Ko, E. J. (2022). Experience and Need of Deaf or Hard of Hearing Students Who Transferred to School for the Deaf. *The Korean society of education for hearing-language impairments, 13(3), 47-72.*
[오인혜, 최상배, 김운이, 고은지 (2022). 청각장애학교로 전학한 농·난청학생의 경험과 요구. **한국청각·언어장애교육연구, 13(3), 47-72.**]
- Oh, W. S., & Park, N. S. (2013). Analysis of Characteristics of Interactions between Non-Disabled Students and Students with Hearing Impairment in Inclusive Class. *The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Theory and Practice, 14(1), 205-234.*
[오원석, 박남수 (2013). 통합학급 청각장애학생에 대한 일반학생들의 상호작용 특성 분석.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14(1), 205-234.**]
- Page, T. A., Harrison, M., Moeller, M. P., Oleson, J., Arenas, R. M., & Spratford, M. (2018). Service provision for children who are hard of hearing at preschool and elementary school ages. *Language, speech, and hearing services in schools, 49(4), 965-981.*
- Park, J. H. (2020). Recognitions and Demands of Speech Language Therapists on speech rehabilitation for hearing impairment. Master's thesis, Nazarene University.
[박정하 (2020). 청각장애 언어재활에 대한 언어재활사의 인식과 요구. 나사렛대학교 일 반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Park, J. K., & Choi, S. B. (2023). Experience and demands on Cooperative Approach between Special Education Teachers and Speech Language Pathologists. *The Korean society of education for hearing-language impairments, 14(2), 83-104.*
[박진경, 최상배 (2023). 협력적 접근을 활용한 언어중재에 대한 특수교사와 언어재활사의 경험과 요구. **한국청각·언어장애교육연구, 14(2), 83-104.**]
- Park, M. H. (2015). The perception of teachers about speech and language therapy. *The Korean Society of Education for Hearing-Language Impairment, 6(2), 43-57.*
[박미혜 (2015). 언어치료에 대한 일반 및 특수교사의 인식. **한국청각·언어장애교육연구, 6(2), 43-57.**]
- Park, S. G., & Ryu, S. Y. (2016). Analysis on Speech Therapists' Recognitions and Demands on Children with Hearing Impairment.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AJMAHS), 6(9), 595-604.*
[박순길, 류성용 (2016). 언어치료사의 청각장애 아동에 대한 인식 및 요구도 분석.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6(9), 595-604.**]

- Seo, J. H., & Yoo, E. J. (2014). Survey on the understandings of general classroom teacher about educating students with hearing impairment and supporting the teacher of an inclusive school. *The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Theory and Practice*, 15(2), 203-230.
- [서중현, 유은정 (2014). 청각장애학생의 통합교육에 대한 일반교사의 인식과 지원 실태 파악.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15(2), 203-230.]
- Yoon, M. H., & Yoon, M. S. (2007). Current Conditions of Early Intervention for Children With Hearing Impairment. *Journal of speech & hearing disorders*, 16(4), 103-124.
- [윤미희, 윤미선 (2007). 청각장애 영유아의 조기중재에 관한 실태조사. **언어치료연구**, 16(4), 103-124.]
- Yoon, M. S. (2003). The Predicting Variables of Speech Production Abilities and Speech Characteristics in Prelingually Deafened Children with Cochlear Implantation. Doctor's thesis, Ewha Womens University.
- [윤미선 (2003). 선천성 심도청각장애 아동의 와우이식 후 말산출 능력의 예측변인 및 말산출 특성.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Yoon, M. S. (2005). Speech and Language Rehabilitation of Children with Hearing Impairment. *Journal of Audiology & Otology*, 9(2), 125-132.
- [윤미선 (2005). 청각장애 아동의 언어재활. **대한청각학회지**, 9(2), 125-132.]
- Yoshinaga-Itano, C., Sedey, A. L., Mason, C. A., Wiggin, M., & Chung, W. (2020). Early intervention, parent talk, and pragmatic language in children with hearing loss. *Pediatrics*, 146(Supplement_3), S270-S277.

<국문 초록>

언어재활사의 청각장애아동 중재 경험과 요구

최은아 · 최상배

[목적] 이 연구는 언어재활사를 대상으로 청각장애아동 언어재활에 대한 경험과 어려움 그리고 요구를 알아 보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방법]** 청각장애아동 언어재활을 담당하고 있는 언어재활사 6명을 대상으로 초점집 단면담(FGI)을 실시하였다. **[결과]** 첫째, 청각장애아동 언어재활을 담당하고 있는 언어재활사의 청각장애아동 중재 계기는 학문적 관심, 우연한 기회, 언어재활과 청각학 복수전공에 따른 선택이었다. 청각장애아동 중재 의 특징으로는 양육자 동반 수업, 청각장애 특성을 반영한 치료실 구성의 차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청각학 지식이 언급되었다. 청각장애아동 언어 중재는 아동의 연령, 청력손실 정도, 청각장애 유형 등을 고려하여 이 루어져야 해서, 청각장애아동을 중재하는 언어재활사는 청각학 지식을 필수적으로 갖춰야 한다고 하였다. 둘째, 청각장애아동 언어재활 중재의 어려움은 청각장애 특성에 따른 수업 진행 과정상의 어려움, 양육자의 청 각장애에 대한 낮은 인식, 청각장애에 대한 전문성 신장의 어려움, 전문가 집단 간 협력적 접근의 어려움이 었다. 셋째, 성공적인 청각장애아동 언어재활을 위해서 청각장애 인식개선과 수어 교육 접근성 강화, 청각장 애 언어재활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육 확대, 체계적인 청각장애 교육시스템 구축, 전문가 간 협력적 접근을 위한 전문가 간 협조 시스템 구축, 정보 교류를 위한 자료 공유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결론]** 이 연구는 청각장애아동 언어재활을 담당하고 있는 언어재활사들을 대상으로 질적 연구를 시행하였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으며, 성공적인 청각장애아동 언어재활을 위한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주제어 : 청각장애, 언어재활사, 언어중재, 청능재활